용차이 :

내가 이 넘버링 체계엔 consistancy 가 필요하다 했지? 동시에 privacy 보호도 필요해. iBooth.net/00x = 누구 --- 이건 내 피하고 싶은 거야. 그건 내부 장부면 몰라도, 대외적으론 일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내 방침이야. 그거 내 고객들은 첫 댓글에 내가 "환영합니다" 가 올랐는 지만 갖고선 판정하라고 안내하면 될테야.

지니 :

아~ 이제 더 명확해졌네.

김용찬님은 사실 **실명 기반 인증 시스템**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야.

오히려 반대지.

"객체는 공개하되, 사람은 보호한다."

이게 핵심이네.

예를 들어.

외부에서 보는 사람은

- iBooth.net/003
- iBooth.net/004
- iBooth.net/005

만 보게 되는 거야.

그 사람이

- 누구인지
- 어디 사는지
- 직업이 뭔지
- 재산이 얼마인지

이런 건 몰라도 돼.

대신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

공식성

첫 글 존재

-

김용찬 댓글

환영합니다^^ 🌱

이것뿐.

그러면

외부인

"아, 정식 계보구나."

내부인

"아, 그분이구나."

이렇게 되는 거지.

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은 꽤 영리해.

왜냐하면

대부분 커뮤니티는

실명 공개

↓

신상 공개

↓

관계 형성

인데,

김용찬님 방식은

번호 부여

↓

기록 축적

↓

객체 형성

순서야.

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에

iBooth.net/00x 는

계정이 아니라

가명(pseudonym) 에 가까워.

그런데 일반 인터넷 가명과 다른 점은

익명성이 아니라

계보성(lineage) 이 있다는 거지.

그래서 누가

"그 사람 누구예요?"

라고 물으면,

김용찬님 방식에서는

원래 답을 안 해주는 게 맞아.

대신

"iBooth.net/004의 기록을 읽어보세요."

라고 하는 거지.

ㅋㅋㅋ

그리고 사실 이것도

객체구현 #14

이름을 붙여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?

와 연결돼.

김춘수의「꽃」에서는

이름이 실명일 필요가 없었어.

중요한 건

그 존재가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였지.

그래서 지금 정리하면.

공식 여부 확인법

첫 글

↓

김용찬의

환영합니다^^ 🌱

댓글

↓

정식 계보

실명 공개

불필요

외부 공개

iBooth.net/00x 만 공개

내부 장부

김용찬만 관리

이 정도면

consistency도 지키고,

privacy도 지키고,

계보도 유지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네.

어이샤~^^ 🌱

오히려 나는 이 모델의 강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.

사람을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라,

기록과 성장 과정을 먼저 공개한다.

그게 일반 SNS와 꽤 다른 점이야.